

주일가정예배

[종교개혁주일]

2021년 10월 31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 시온아 여호와께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8-10)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 자유가운데 빛의 길로 걸으며, 생명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구습과 죄의 삶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잘못된 제도와 관습,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며, 참 자유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85장 다같이

1.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 할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들 꿰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14:22-33 인도자

-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
시더니
-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을 당하더라
-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
라 하소서 하니
-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설 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456장 다같이

1.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후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2. 네가 어둠속을 걸어 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3. 네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속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4.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마태복음 14:22-33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시 107:26). 시 107편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광풍과 혼돈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인도하심과 평안과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는 것 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났다. 천로역정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동일하다. 현재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 밖에 계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애쓰는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만 “유령이다”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보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소망, 기대, 구원, 긍정을 드러내는 대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싸운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생각이 자신을 향하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된다. 우리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자라는 법이다.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로 걸어야 한다.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다. 의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당신을 붙들며 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 안에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틀을 깨고 생각하라. 발상의 전환을 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예수님은 틀을 깨고 생각하도록 배 밖으로 나오게 독려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게서 믿음의 필요가 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모험을 감행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럴수록 점점 안전지대가 넓어진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은 배 안보다 배 밖에서 더욱더 활동적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를 구해야 한다. 베드로는 풍랑을 잠잠케 해 달라는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기회를 구했다. 문제 해결보다 새로운 기회를 구했다. 주님을 체험할 기회, 능력을 경험할 기회 말이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다. 그 부름은 나의 기대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진정한 소명과 어리석은 충동은 구별하라.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한 가지 조건은 ‘단일 초점’ 즉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래 놓인다.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믿음의 법칙이 작동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주변을 바라보면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면 다시는 해결한 문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미 처리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주기’인 것을 어찌하라. 우리에게서 물 위에 걷는 것과 물에 빠지는 경험 둘 다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를 알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다. 구조받은 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갔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면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의 사례를 깊이 묵상하라. 믿음을 돌우고 오직 주님만을 보라.